

마음 열기

찬송가 175장을 함께 부르시다.

나는 일을 이루는 편인가요? 미리 해 두는 편인가요?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25장 1-13절, “준비하는 자”

우리는 심령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들을 말씀하신 후(24장),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여기서 ‘그 때’는 오늘날과 같은 말세의 때를 의미합니다.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열 처녀’는 성도들을, 즐겁고 기쁜 ‘혼인 잔치’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천국 생활을 상징합니다. 이 천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령 속에 임하는 ‘심령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침노하여 빼앗는 것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힘쓰고 노력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11:12).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장차 임할 영원한 천국을 깊이 깨닫고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 속에 심령 천국이 임하고, 그 심령은 혼인집 잔치와 같이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예비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사러 가느라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시는 것은 **첫째,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기름처럼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후순위로 미루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려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고, 말씀이 오히려 남을 찌르고 판단하는 죽음의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평안한 지금, 내 생각과 고집보다 말씀을 앞세워 생명의 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지 모르니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매여 내가 해야 할 신앙생활을 미루거나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지금과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서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바로 설 때,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나의 영적 상태는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는 부모의 신앙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거나 세상에서 잘 되지 못하는 것도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이며 오직 내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스스로 힘써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결국 졸며 잤습니다(5절). 아브라함과 다윗, 엘리야와 세레 요한과 같은 훌륭한 자들도 모두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 있고,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잠들었음에도.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깨어났을 때 다시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이 들어 믿음이 약해졌다가도, 내 안에 준비된 말씀이 있으면 곧바로 다시 분별하고 힘을 내어 예수님을 찾고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준비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깨닫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 날마다 심령 천국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 앞에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내일이나 다음이 아니라 오늘과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 줄수 없고, 오직 나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언제든지 영적으로 잠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성도는, 넘어져도 언제든지 분별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가장 우선 순위가 말씀이 될 때, 장차 임할 하늘나라가 내 안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1. 나는 지금 심령 천국을 누리고 있나요? 점검해 봅시다.
2.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준비를 미뤘던 것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미뤘던 적이 있나요?
3. 내 안에 준비된 말씀으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섰던 적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예수님을 세상의 것들보다 뒤에 두었던 것을 회개합시다.
2. 나에게 이미 주어진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3.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준비된 기름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선교 : 교회의 아름다운 사명”

기쁨, 겸손, 은혜를 품은 복음 중심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안전지대를 떠나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선교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야 합니다(요 20:21). **둘째로, 전도(선교)는 특별한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일상(예배, 소그룹, 식사)을 통해 비신자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 떡을 떼는 일상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행 2:46-47). **셋째로, 비신자를 교회로 이끄는 전도(선교)와 교회 안에서 신자를 양육하는 제자훈련의 은사가 분리되어 있다는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전도(선교)와 훈련, 그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전도(선교)와 훈련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자체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마28:19-20).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례를 베풀고(전도),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훈련)은 ‘연속된 하나님의 명령’이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교사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선교는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오라”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말입니다(요1:14). 그리고 성경 속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처럼, **낯선 이들을 배려하고 환대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계속해서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태함과 안정의 우상을 물리치고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와 다가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전하고, 확장된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사는 신승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중심 공동체”, 생명의 말씀사

FAMILY 나눔

2026년 7월 5일

준비하는 자

마태복음 25장 1-13절

